

지상파 드라마 시청률 전략 '자충수'

좋은 콘텐츠 제작보다 빠른 길만 찾다 곳곳 악재 각종 사고에 불화설까지

극본·배우·제작비 기근이라는 '삼중고'에 빠진 지상파 드라마들이 단기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들이 자충수가 돼 돌아왔다. 최근 tvN·JTBC를 위시한 비지상파에 밀린 지상파들은 주말극에서 활동해온 스타 작가를 평일 미니시리즈로 데려오거나 작품을 무리하게 연장하고, 톱배우에 의존하는 식으로 자구책을 모색해왔다.



SBS TV '황후의 품격'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2'

마지막까지 잡음에 시달린 셈이다.

그래도 주말극 작가의 평일극 진출로 시청률을 쟁기 사제가 나오자 KBS 2TV도 따라 하기에 나섰다. '소문난 칠공주' (2006), '조강지처 클럽' (2007-2008), '수상한 삼형제' (2009-2010), '왕가네 식구들' (2013-2014), '우리 갑순이' (2016-2017)의 문영남 작가를 수목극으로 불러들였다. 장남 풍상(유준상 분)과 절친인 동생 넷의 이야기를 담은 문 작가의 신작 '왜그래 풍상씨'는 캐스팅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KBS 주말극에 딱 어울릴 만한 작품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KBS 2TV 월화극 '동네변호사 조들호2'는 대놓고 사고가 난 경우다.

박신양과 고희정, 두 톱배우의 더블 캐스팅에 지난 시즌의 성공까지, 흥행이 보장된 듯했으나 막상 푸경을 열어보니 시청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시즌1과는 전혀 다른 플롯, 극의 분위기와 트렌드에 뒤처진 연출이 발목을 잡았다.

줄곧 불화설이 나돌던 이 작품은 결국 박신양의 부상으로 2주간 결방하기에 이르렀다. 제작진은 결방 기간 재중편을 통

해 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 애썼지만, 이후에도 조달환·이미도 등 조연들의 중도 하차를 놓고 제작진과 배우 소속사 간 이견이 노출됐고, 작가 교체설도 돌면서 분위기는 한층 더 어수선했다.

이밖에 갈등이 노출되진 않더라도 최근 지상파 드라마는 내부 관계자들조차 "이렇게 심각한 적이 없었다"고 입을 모을 정도로 침체에 빠진 상황이다.

심지어 '대세' 주지훈이 나선 MBC TV '아이템'조차 시청률이 5% 이하로 주저앉았다. 스타 캐스팅과 화려한 컴퓨터그래픽(CG) 등 불거리는 있지만 정작 잘 꿰어지지 못한 스토리가 발목을 잡았다.

한 방송가 관계자는 19일 "제작비가 점점 늘어나는 시장 속에서 지상파의 제작비는 점점 줄고 있고, 그래도 성과는 나아하니 자주 콘텐츠를 잘 만들려고 하기도 하지만 길로만 가려고 한다"며 "드라마는 시청자와 가장 근접한 장르라 속이려야 속일 수가 없다.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콘텐츠로 경쟁하는 게 결국은 절경이라는 것을 지상파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MBC, UHD 특집 다큐 '세계지질공원' 25일 방송

배우 박진희 내레이션



박진희

광주MBC가 UHD(고화질해상도) 특집 다큐멘터리 '세계지질공원'을 오는 25일 오후 8시 55분 방송한다. '세계지질공원'은 지난해 4월 무등산권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것을 계기로 우리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했다. 김민호 PD가 기획, 이경찬 PD가 연출을 맡고, 박진희 작가가 제작에 참여했다.

이날 방영되는 '지오투어리즘' 편에서는 배우 박진희가 내레이션을 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질자원의 가치와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지오투어리즘의 가능성을 담았다. 제작진은 세계의 지질공원을 직접 찾아가다. 유네스코 파리본부에서는 왜 세계는 세계지질공원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지질공원의 탄생지인 유럽의



영국 자이언트 코즈웨이 주상절리.

프랑스 사블레, 독일 오펜발트를 비롯해 베트남의 국가주도형 지질공원인 카오방, 내년에 인증을 앞두고 있는 칠원군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등의 모습도 카메라에 담았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답을 찾아냈다.

독일 불간아이펠 화산 분화구와 4만여 개의 주상절리가 위용을 뽐내는 영국 자이언트 코즈웨이 등 세계 각지의 지질공원의 풍경을 담아낸 UHD 영상도 볼거리다. '지오투어리즘' 편에 이어 '로컬피플' 편은 오는 4월 방송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홍진영, '랏츠 오브 러브'로 컴백

3월 첫 정규앨범 발매 타이틀곡 '오늘 밤에'

가수 홍진영(34·사진)이 오는 3월 8일 첫 정규앨범 '랏츠 오브 러브' (Lots of Love)로 컴백한다.

19일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오늘 밤에'로, 1980년대 디스코 펑크와 트로트를 집적했다.

홍진영이 싱어송라이터로서 재능도 뽐내던 만큼 이번 앨범에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가 담겼다. 전체 프로듀싱은 히트곡 제조기 조영수 작곡가가 맡았다.

뮤직K는 "홍진영이 그동안 사랑에 관한 노래를 불러왔고,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보내겠다는 뜻을 담은 앨범"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걸그룹 스완으로 데뷔한 홍진영은 2009년 '사랑의 배터리'를 시작으로 '신다는 건', '엄지척', '갈거라'를 연달아 히트시켰다. 그가 정규앨범을 발매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아이템(재)	10 SBS 뉴스 20 SBS 생활경제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왜그래 풍상씨(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란닝맨 2 스페셜 45 내 친구 요리리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불이 오나 봄(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다큐 공감(재)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MBC PICK X 아이템(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25 꼬마돌도 도2 55 내 사랑 치유기(재)	
4	00 시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55 5 MBC 뉴스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스페이스 박스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5 내 사랑 치유기(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디큐	50 원소집이 아내	15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고희정문목 남도에 살아리라고 3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비켜라 운명(재)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실화탐사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55 나만의 독립 영웅(강연식)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숨터	00 왜그래 풍상씨	00 불이 오나 봄	00 황후의 품격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옥탑방의 문제아들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06:00 한국기행(재)	12:10 EBS 초대석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지식채널e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08:00 동등명 유치원1~2	14:30 코코몽3
08:30 미니특공대 X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08:45 랄랄라 뿌우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09:00 엄마 까투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09:30 윈더볼츠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6:30 랄랄라 뿌우(재)
10:30 한국기행(재)	16:45 동등명 유치원1~2(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참나물 새우뎀밥과 김치전>	17:15 엄마 까투리
	17:30 꼬마버스 타요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19:00 피피루 안전특공대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 화산섬의 비밀
	19:30 EBS 뉴스
	19:50 메디컬 다큐 - 7요일
	20:40 세계테마기행 <스페인 소도시 기행 3부 축복의 땅 피레네 산맥>
	21:30 한국기행 <고택의 겨울 3부 오랜 집, 오랜 그대>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극한직업
	23:55 EBS 초대석
	24:45 지식채널e
	24:50 세계의 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0일 (음 1월 16일 戊子)	
	36년생 간발의 차이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48년생 강한 행운의 암시가 보인다. 60년생 이해와 배려가 따른다면 파생 효과가 크다. 72년생 시행착오에 따른 손실이 지대할 것이다. 84년생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그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53, 90		42년생 다 함께 모여서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54년생 원인을 파악한 후에 근본적인 대처를 해야만 한다. 66년생 집중해야 할 때이다. 78년생 해결점을 찾으면서 소강상태를 벗어난다. 90년생 진흥탕 속에 묻혀있는 진주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7, 27
	37년생 조금씩 행운이 나타날 것이나 걱정할 필요 없다. 49년생 반복 될 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61년생 생 길사는 적으니 하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 해야겠다. 73년생 방만하거나 무관심 한다면 상실 할 수도 있다. 85년생 쇠밭도 단 김에 빼왔다. 행운의 숫자 : 13, 62		43년생 확신이 없다면 삼가라. 55년생 함께 한다면 부가적 이익이 대단히 크다. 67년생 기대 했던 것은 이미 물거품이 된지 오래 되었다. 79년생 가까스로 수습한다고는 하지만 후유증이 오래 갈 수도 있다. 91년생 자신의 예감이 적중하리라. 행운의 숫자 : 95, 18
	38년생 외형상으로는 복잡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풍부해진 셈이다. 50년생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62년생 조건을 낱알이 고려한다면 의중을 파악할 수 있다. 74년생 내색하지 않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86년생 생각보다 나은 결과이다. 행운의 숫자 : 98, 48		44년생 단순한 비교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56년생 간절히 바라다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68년생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의 관점이다. 80년생 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92년생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37, 76
	39년생 발전적이고 능률적으로 나아가야한다. 51년생 주도면밀한 준비와 과감한 실행이 절실한 때이다. 63년생 처한 입장 때문에 원칙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75년생 뜻밖의 인연이라면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87년생 융통성을 발휘하자. 행운의 숫자 : 47, 15		45년생 역풍이지만 곧 순풍으로 바뀌리라. 57년생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69년생 인고의 계를 넘어 성취의 기쁨을 만끽한다. 81년생 흠 속에 묻힌 옥을 찾아내는 희열이 있다. 93년생 중용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참모도 중하다. 행운의 숫자 : 16, 96
	40년생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 52년생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 낸다면 희망찬 미래를 연다. 64년생 속단은 금물이다. 76년생 전혀 인식하지 못 하였던 오류가 보인다. 88년생 동일한 현상이 반복 되면 서 상승 기류를 마련한다. 행운의 숫자 : 54, 59		34년생 애로 사항이 보이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46년생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58년생 액운이 보이니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70년생 운택한 기운이 들고 있다. 82년생 경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서 고전하는 구도이다. 행운의 숫자 : 50, 83
	41년생 확실히 분간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53년생 과감하게 진행시켜도 된다. 65년생 갑자기 급변하여 크게 놀랄 수도 있느니라. 77년생 괜한 헛발질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89년생 전후좌우를 잘 살펴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8, 75		35년생 제대로 역량을 발휘해야 할 국면에 이르렀다. 47년생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59년생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성숙을 만들어 가는 것이 능률적인 열쇠이다. 71년생 한계를 넘어선다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드러난다. 83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라. 행운의 숫자 : 91, 28